

전국육상경기대회, 익산시 힘찬 출발

10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진행… 전국 1600여명 선수 참가·종목별 기량 겨뤄

익산에서 전국 육상 선수들과 유망주가 모여 열린 경기를 펼친다.

익산시는 6일부터 10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백제왕도 익산 2025 전국육상경기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다.

중등부부터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까지 전국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

가해 종목별 기량을 겨룬다.

특히 익산시청 육상팀의 선전도 기대된다.

중거리 부문 이우민·조현욱·김가경·오혜원, 포환던지기 이성빈, 해머던지기 장영민·김태희, 창던지기 김민지 선수가 대회에 나선다.

또한 대회 중인 8일 오후 1시 50분에는 한국신기록 수립 선수에 대한 포상금 수여식이 열린다.

지난 6월 한국신기록을 경신한 김태

희 선수(익산시청)를 포함해 이재웅·김장우 선수(국군체육부대), 지도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대회는 지역 육상선수들의 실력을 한층 높이고, 익산 육상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많은 분이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NS 푸드페스타' 참가자 모집

9월 26~27일, NS홈쇼핑과 총상금 1억원 규모 개최… 30일까지 접수

식품산업의 중심지 익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식문화축제 'NS 푸드페스타'가 전국 요리 경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익산시는 NS홈쇼핑과 공동으로 오는 9월 26~27일 합일을 제4일반산업단지 에 위치한 하림 파스츠키친에서 'NS 푸드페스타'를 개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NS 푸드페스타는 총상금 1억 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요리경연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올해도 경연에 참여할 요리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2인 1팀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7월 30일까지 NS홈쇼핑 PR 누리집(pr.small.com)에서 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요리경연 참가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요리경연은 축제 첫날인 9월 26일 열

리며, 주제는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장 맛있는 레시피다. 미식 간편식 부문 50팀, 조리 전공 대학생 부문 20팀 등 총 70개 팀이 열린 경연을 벌일 예정이다.

이튿날인 9월 27일에는 특별경연이 진행된다. '아빠와 자녀 요리대회'에는 14세 미만 자녀와 아버지로 구성된 40팀이 참가하고, '글로벌 라면 경연'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팀이 이색 레시피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방문객이 직접 보고 즐기는 체험형 축제 로 구성될 예정이다. 생생한 요리 현장을 가까이에서 관람하며 풍성한 미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시민과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 전개

익산시가 불법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지역과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분리배출 미이행과 무단 배출 등 불법투기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위생 문제를 유발해 주민 생활 불편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시는 주민 인식 개선과 올바른 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시는 이날 공무원, 신동 주민 등 40여 명과 함께 '클린 대학가 만들기'를 주제로 캠페인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대학생, 외국인 등 원룸 거주자를 비롯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요령, 배출 시간,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 등을 안내했다.

시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투기지역에 대한 특별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 운영 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국립군산대, 'SW중심대학 사업 학계 성과공유회' 성료

국립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은 지난 3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2025년 SW중심대학사업 학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기초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SW중심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운영된 다양한 SW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학-대학원 R&D(5팀) △기업 모토학습(7팀) △기업 튜터링(5팀) △SW활용 동아리 활동(5팀) 등 총 22개 팀의 결과 발표와 전시로 구성되었으며, 각 팀은 실무 중심 프로젝트를 통해 AI·SW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립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은 실습 중심의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보건소,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실천 당부

군산시보건소가 올해 예전보다 이른 폭염으로 급증하고 있는 온열질환 주의를 지난 4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물을 자주 마시며 더운 시간(낮 12시~오후 5시) 야외활동 자제하기 △외출 시 햇빛 차단하기 등의 일반적인 건강 보호 수칙만 준수해도 가능하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린이,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심뇌혈관 질환·당뇨병·치매 등)는 보호자와 주변인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소는 온열질환의 발생 현황과 특성을 모니터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건강관리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여름철 민간 건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

노동안전지킴이, 관내 건설사업장 안전 지도… 산업안전 강화 나서



군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민간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점검에 나선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촉한 '노동안전지킴이'가 관내 민간 건설공

사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 법령 및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폭염 대응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등으로 현장 전반의 안

전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점검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 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2023년 11월에 제정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의 매력 사진으로 알리다… '군산시 관광 홍보 전시회' 개최

도 교통문화연수원 전시 공간서… 7월 한 달간 홍보 전시

군산시가 7월 한 달간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군산시 관광 홍보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올 하반기 도내 시군 관광지 홍보 전시회의 첫 번째 주자로 군산시가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완주군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교육 등이 이뤄져 연간 1만여명에 달하는 교육생이 방문하는 기관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한 군산관광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근대 골목과 철길 등 레트로한 매력이 돋보이는 시간여행마을과 경암동 철길마을 △서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 고군산군도

와 K-관광섬의 맛도, 명도, 방축도를 잇는 고군산 섬길길 등 군산의 주요 관광지 사진 10여 점이 선보여 군산의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시는 전시와 함께 10월 9~12일까지 개최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와 군산의 대표 미식 축제인 '뽕페스티벌' 홍보도 함께 진행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군산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사진 전시를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 기회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군산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